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과 몸의 서사

김양선

국문초록

본고는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이 주로 다루는 '주체의 정체성 위기'가 육체와 모종의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남성 육체가 재현되는 방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주체의 구성 과정이 어떻게 '육체'라는 것을 주제화하는 방식과 연결되는지를 규명하고, 서사의 플롯을 작동하는 원리와 '육체'가 맺고 있는 관련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육체는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호기심과 재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시에 감춰졌다. 그런데 이 시기에 남성의 육체가 재현의 망에 들어온다. 1930년대 중반 이후 모더니즘 소설은 남성의 몸을 병약한 몸, 신경증이나 우울증에 걸린 몸, 여성적인 것으로 기호화된 몸으로 재현하고, 그런 자신의 육체를 발견해 가고, 육체에 각인된 사회적 의미를 탐색하는 주체를 형성화한다. 근대(성)에 대한 일련의 반성적 성찰이라는 맥락에서 남성의 몸은 주제 위기를 되짚어보는 일차적 장소로, 병든 사회에 대한 기호로 때로는 그 사회에 편입되지 않으려는 저항의 거점으로 기능한다.

이상 소설에 출현한 '여성화된 남성'은 모더니즘의 자기반영적 특질인 인공성의 단면이자 남성 주체가 자기 정체를 연기(演技/延期)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고안한 것이다. 더욱이 죽음에 처한 몸, 처벌받는 몸처럼 자기 파괴적인 몸은 한갓 유희의 대상이 된다. 작가는 자명한 현실, 자명한 몸에 대한 상식을 전복하고, 몸에 새겨진 의미를 극대화함으로써 그것을 글쓰기의

차원에서 체현(embodiment)한다.

한편 최명익과 유항림은 환멸뿐인 현실, 주관적인 절망에 빠진 지식인의 이성중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남성의 몸을 성찰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남성 주체는 암이나 각혈과 같이 몸에 벌어진 자명한 사실을 수용하면서 관념으로 주조되었던 이전의 세계를 부정하게 된다. 요컨대 몸의 발견과 야만의 시대에 대한 비판이 함께 함으로써 당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몸의 서사'라는 관점에서 모더니즘 소설을 새롭게 읽을 경우 그것이 당시의 지배적인 몸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 재현된 남성의 몸은 근대적 삶에 포획되면서도 동시에 저항하는 주체의 불안한 내면을 기호화함으로써 당대 남성-지식인들의 향방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핵심어: 모더니즘 소설, 몸의 서사, 남성의 몸, 여성화된 남성, 병든 몸, 정체성 위기

1. 근대 문학과 몸이라는 문제 설정

근대 문학에서 육체는 글쓰기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에로틱한 서사물에서처럼 육체를 욕망의 주체 및 대상으로 설정해 파악하려는 명시적 태도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 생산 과정에서 육체가 중심 요소가 되는 서사물까지 고려한다면 육체와 글쓰기간의 관련성은 대단히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밝히고, 육체에 정체성의 판별을 가능케 하는 표지를 하며, 그리하여 육체를 핵심적인 서술적 기호가 되게 하는 현상은 근대 서사물에 매우 빈번하게 등장한다.¹⁾

그런 점에서 정체성과 육체는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 많은 서사들이 육체에 도달하려는 의도의 성공 혹은 실패, 그 과정에서 산출되는 성취 혹은 환멸의 이야기를 중심 플롯으로 삼는다는 것²⁾은 정체성과 육체간의 관계를 새

1) 피터 부룩스, 이봉지·한애경 역, 『육체와 예술』(문학과지성사, 2000), p.69.

2) 피터 부룩스, 위의 책, p.35.

삼 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과 육체간의 상동성이라든가 육체 그 자체에 대한 관심, 정체성의 표식으로서의 육체는 우리 근대 문학이 간파해 온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근대 문학의 여명기를 점유했던 계몽 담론들은 육체를 억제하고 관리해야 할 욕망의 진원지로 여겼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계몽 담론은 육체를 담론의 영역으로 전격 부상시킨 것이 사실이다. 근대 계몽기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위생학, 병리학 관련 담론은 이른바 ‘건전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식으로 육체와 정신을 연관지어 파악하고, 그것을 주체의 국민되기를 결정짓는 요소로 보는 경우가 허다했다. 문명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개인의 몸은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건강한 육체, 문명화된 육체는 근대적 국민국가를 세우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여기서 개인의 육체는 곧 국가의 육체라는 비유체계가 생겨난다.³⁾

근대 계몽 담론이 병리학, 위생학과 관련하여 유포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가 결핵, 매독과 같이 비위생적인 환경, 성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질병의 척결이었다. 고미숙에 따르면 루신이나 이광수뿐 아니라 타락한 정신이나 세태를 썩어빠진 혈관에 비유하고 그것을 말끔히 청소해야 한다는 식의 병리학적 메타포는 근대 이후 매우 일반적인 수사학이 되었다.⁴⁾

하지만 개인의 육체 및 질병을 민족-국가라는 전체 유기체의 일부로 호명하는 작동 방식과 함께, 그것을 저항의 거점으로 삼는 담론이 문학의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가라타니 고진은 「병이라는 의미」에서 문학 작품에서 일종의 메타포로 쓰인 결핵이 부정이나 금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된 의미론적 기호로서 가치가 있으며, ‘자아에 대한 새로운 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결핵의 문학적 미화는 결핵에 관한 앎의 과학

3) 이승원, 「근대계몽기 서사물에 나타난 ‘신체’ 인식과 그 형상화에 관한 연구」(인천대학교 대학원, 2000), pp.16~21참고.

4)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민족·섹슈얼리티·병리학』, (책세상, 2002), pp.163.

에 반발하면서 생겨났다.⁵⁾ 근대 의학과 같은 지식의 제도 권력은 질병의 발견을 통해 사회는 병들어 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사상을 널리 유포함으로써 주체의 내면을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메타포로서의 결핵'은 개인의 열정과 육체를 국가에 복속시키려는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1920년대 이 땅의 젊은 작가들이 돌림병처럼 앓았던 결핵, 문학 텍스트에 투영된 결핵과 같은 대표적인 질병은 식민지 현실에 그 원인이 있든, 작가의 가계나 개인적 이력과 관련이 있든 기존 질서나 권위에 몸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규율과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육체에서 저항의 거점으로서의 육체로 전이되는 것은 압축 근대화라는 식민지 근대의 특성에 미루어 볼 때 동시다발적인 현상이었는가, 아니면 일종의 진화과정이었는가. 문학 예술의 르네상스기가 도래하면서 이제 개인은 육체에 덧씌워진 규율과 통제의 이데올로기를 걷어내고 스스로 육체를 부릴 수 있는 주체가 되었는가.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고는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 재현된 남성의 몸을 살펴보고자 한다.

텍스트에 재현된 남성들은 하나같이 '앓고' 있다. 결핵이나 암과 같이 뚜렷한 질병으로 인해 앓기도 하고, 우울증, 신경증, 분열증과 같이 정신적으로 앓기도 한다. 특히 결핵이나 암과 같은 육체의 병은 가난이 육체에 새긴 흔적으로, 불우한 예술가와 속악한 일반인을 구별하는 육체적 기호로,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주체가 자신을 위장하는 매저키즘적 수단으로 다양하게 입힐 수 있다. 육체는 권력이 작동하고 주체가 그 권력에 저항하는 길항작용이 생생하게 빚어지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질병은 서사의 출발부터 종말까지를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고는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이 주로 다루는 '주체의 정체성 위기'가 육체와 모종의 관련이 있다고 본다. 남성의 육체 및 질병이 주체의 문제와

5)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민음사, 1997), p.139.

관련하여 자각적으로 텍스트에서 다루어지는 것도 대체로 이 시기부터다.⁶⁾ 피터 부룩스에 따르면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육체는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호기심과 재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시에 감춰졌다. 남성의 육체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탐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남성의 육체가 재현될 경우 그것은 투쟁 중인 육체, 영웅적인 육체였다.⁷⁾ 그런데 왜 유독 이 시기에 남성의 육체가 재현의 망에 들어오고, 그것도 건강

- 6) 최근에 증폭된 몸담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몸의 식민화 양상이라든가 재현의 차원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은 남성의 경우보다 여성의 경우가 훨씬 더 심각하다. 192,30년대라고 해서 별반 차이는 없다. 가령 ‘여성 수난사’ 이야기는 민족-국가의 상실에 따른 위기감을 드러내거나 상쇄하기 위해서 여성의 몸을 타자화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문제적인 여성의 몸이 아닌 남성의 몸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주체가 자신과 성적으로 ‘다른’ 몸을 타자화하는 한편 자신의 몸을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주체를 성찰하는 측면이 있을 거란 가정 때문이다. 민족-국가에 귀속되는 몸이 아닌 그로부터 떨어져 나간 개별적인 몸과 그 몸에 각인된 의미들이 지닌 사회 역사적 맥락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민족, 국가, 대주체와 일치시키는데 익숙했던 남성의 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게 본고의 일차적인 문제의식이다.

1930년대 문학에서 여성이 타자화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줄고, 「1930년대 후반 소설의 근대성에 대한 반응 양상 연구-여성 주체의 재현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1호(태학사, 2000)을 참고할 것.

대상 시기는 다르지만 ‘여성 수난사’ 이야기에 대한 연구로는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여성문학연구』7호(예림기획, 2002)를 참고할 것.

또 한가지 본고에서 주로 다루는 남성의 병든 몸이 결국 ‘메타포로서의 질병’에 국한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법도 하다. 하지만 본고는 단순히 비유나 상징으로서의 질병만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피터 부룩스는 프로이트가 신경증 환자의 육체적 증상을 살피고 분석하는 작업을 예로 들면서 신경증을 육체 위에 쓰는 글쓰기의 일종으로 본다. 텍스트는 명시적, 암시적으로 육체에 자국을 내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육체를 의미의 영역, 서술적 기표의 영역에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의에 착안해 필자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육체 위에 새겨진 자국이나 흔적으로, 서사를 이끄는 동력으로 보고자 한다. (이에 관해서는 피터 부룩스, 앞의 책, pp.60~62참조.)

- 7) 피터 부룩스, 앞의 책, p.46.

하고 영웅적인 육체가 아니라 쇠락하고 병든 육체, ‘여성화’된 육체로 재현되는가. 그것은 쇠락한 국가, 절망적 현실을 자기 몸에 투사한 것인가, 아니면 국가=대주체=남성이라는 등식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지점에서 이루어진 남성 주체의 회한어린 자기 성찰인가.

본고는 이와 같은 의문에 답하기 위해 주체의 구성 과정이 어떻게 ‘육체’라는 것을 주체화하는 방식과 연결되는지를 규명하고, 서사의 플롯을 작동하는 원리가 ‘육체’와 맺는 관련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2. 1930년대 몸 담론의 양상

1930년대 중반 이후 여성과 남성의 몸을 둘러싼 담론은 파시즘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게 구성된 건강하고 건전한 몸이라는 담론과 그 담론의 질서를 비껴가고 전복하는 담론이 공존, 경합하는 양상을 띤다.

모더니티에 대한 반동과 또 다른 모더니티에 대한 열망을 동시에 담고 있는 파시즘은 자연과 야생, 역동의 미학을 찬양한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을 주도하면서 식민지 조선 민중 역시 총동원 체제에 적합한 자질을 지니도록 요구받게 된다. 가령 혼인과 출산을 통해 피를 섞음으로써 식민지 조선 민중을 일본화 하려는 ‘일선통혼’ 정책은 생물학적 몸을 통제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제국주의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국민국가라는 추상적 관념(이른바 상상의 공동체)은 그 구성원들의 몸을 일차적으로 호명함으로써 실감과 구체성을 확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총동원 체제 하에서 남성의 몸은 전쟁에 동원될 병사의 몸으로, 여성의 몸은 그 병사를 낳고 기르는 재생산을 담당하는 몸으로 일원화된다. 남성과 여성의 몸은 그러므로 건강해야 한다.

병약한 몸, 신경증이나 우울증에 걸린 몸은 비정상적인 것, 일탈적인 것, 여성적인 것으로 기호화되거나 배척된다. 1930년대 지배적인 몸 담론과 관

런해 모더니즘 문학이 지닌 전복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문학과 예술분야에서의 모더니즘은 리얼리즘과 자연주의 전통이 갖고 있는 모방에 대한 환상을 파괴하고, 현실을 유동적이고 파편화된 것으로 파악한다.** 모더니즘 텍스트는 이성적인 남성/감성적인 여성이라는 이항대립적 구도를 부정하면서 매저키즘적이고 여성화된 남성 주체를 즐겨 형상화했다.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한층 강화된 성별정체성과 그에 따른 역할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처럼 모더니즘은 의도적으로 도착적이고 인공적인 것을 숭배함으로써 진보, 영웅주의, 민족적 정체성을 건강한 남성성이라는 신체적 규범과 동일시하는 시각을 부정하면서 ‘여성화된 남성’을 부각시킨다.

모더니즘적 주체는 노동과 정치라는 공적 영역보다 여성적인 것으로 약화된 내밀한 사적 공간을 선호한다. 이런 여성화된 남성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일상생활을 미학적 기획으로 변형시키고 아주 사소한 생활 양식까지 일종의 연행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한 모더니즘 텍스트는 남성의 환상 속에서 창녀로 집약되는 여성의 성적 육체를 파편화시키고 훼손시키는 우회적 방식을 통해 자기 혁신의 욕망을 드러낸다. 단적으로 성적인 여성 육체를 거부하고 그것을 전위시키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이 전위(displacement)의 핵심은 거대한 여성/왜소한 남성이라는 식으로 성별 규범을 유희적으로 전복하는 것이다. 이제 남성은 자신을 여성적인 자질들을 끌어와 위장하고, 남성성을 볼거리로 변형시킨다.⁸⁾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들에서 무수히 발견되는 구도, 즉 지식인 남성이 창녀 혹은 여급과 일시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가는 스토리 라인은 한편으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육체를 위협한 것으로 타자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허물고 매저키즘적으로 여성

8) 모더니즘 텍스트에 재현된 ‘여성화된 남성’에 대해서는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영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거름, 1998)의 4장을 참고한 것.

성을 전유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이상 소설에서 아내에게 학대받는 남편, 변신술(翻身術)에 능한 여자에게 농락당하는 남성이라든가 최명익이나 박태원, 단층과 소설들에 등장하는 카페 여급들과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는 지식인들은 ‘여성화된 남성’을 전경화함으로써 주체를 보존하려는 텍스트의 전략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남성들의 몸은 히스테릭하고 선별질적이며, 모종의 질병을 앓고 있으며, 사적 영역에 갇혀 있다.

본고는 아래 장들에서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와 정반대 지점에 있는 이 ‘(남성) 육체의 이야기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주체의 위기나 성찰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3. 연기(延期/演技)하는 몸, 이상

이상 소설에 등장하는 육체는 각형하고 병든 육체, 생산을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육체, 광장과 시계시간과 같은 근대적 삶의 질서를 혐오하고 방안에 스스로를 윤택시키는 육체, 거미나 돼지로 환치되는 동물적인 육체이다. 먼저 글쓰기의 토대로 작용하는 폐결핵에 의한 각형은 텍스트 전체에 걸쳐 심층적인 논리로 작용한다.⁹⁾ 그런데 이 병든 몸은 현실의 이상에게는 절망적인 자명한 사실이지만, 텍스트 층위에서는 자아의 정체성을 드러내길 연기(延期)하는 연기술(演技術)의 일종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상 소설의 육체는 근대 남성에게 부과된 육체의 의무, 예컨대 가족 부양을 위한 노동이랄지 근대 국가의 확립에 기여할 건강한 몸 가꾸기 등에서 이탈한다. 병든 육체는 “세상을 속이고 일부러 자기를 속임으로 하여 본연의 자기를 알른 보기에 고귀하게 꾸미자는(「단발」)” 서사적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주체는 자기를 부러 병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위장함으로써 궁극적으

9) 이재복, 「이상 소설의 각형하는 몸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6호(예림기획, 2001), p.162.

로는 세상을 속이고자 한다. “소녀에 대한 애욕”을 지껄이기와 “그러면서도 그의 육체와 그 부속품은 이상스러울만치 게으르기”. 지나친 열정과 게으름 사이에서 빚어지는 이 부조화는 “연애보다는 한 구 윗티즘”을 좋아하는 그의 성격에서 나온다. 연애나 애욕과 같은 친밀성의 영역마저 위장하고 연기하는 듯한 이런 태도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근대적 관념을 전복한다.

‘여왕봉’ 같은 여자와의 연애와 실연을 반복하기, 죽음에 대한 강박증과 죽음을 유희화하기 사이를 오가는 것은 이상 소설에 두루 나타나는 특징이다. 우리는 여기서 저 유명한 에로스적 충동과 타나토스적 충동이 서로 만난다는 식의 명제를 갖다댈 필요는 없다. 육체와 모종의 연관이 있는 두 가지 반복적인 모티프는 주체를 위장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탓이다.

슬퍼?응-슬플밖에-이십세기를 생활하는데 십구세기의 도덕성밖에는 없으니 나는 영원한 절름발이로다. 슬퍼야지-만일 슬프지 않다면-나는 억지로라도 슬퍼야지-슬픈 포우즈라도 보여야지-왜 안 죽느냐고? 해행! 내게는 남에게 자살을 권유하는 버릇밖에 없다. 나는 안 죽지. 이따가 죽을 것만 같이 그렇게 衆俗을 속여주기만 하는 거야- 그러나 인제는 다 틀렸다. 봐라. 내팔. 피골이 상절. 아아아아. 웃어야 할 터인데 筋肉이 없다. 울려야 筋肉이 없다. 나는 形骸다. 나-라는 정체는 누가 잉크 짓는 약으로 지워버렸다. 나는 오직 내-퇴跡일 따름이다 (『실화(失花)』, pp.368~9.)¹⁰⁾

서술주체는 자신을 ‘절름발이’로 인식한다. 십구세기식 도덕이 지배하는 현실에 이십세기식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절름발이이며, 「날개」에서 표명되었듯이 여인과의 관계가 전도되었기에 절름발이이다. 남녀 관계의 역전, 속고 속이는 관계의 역전과 같은 전도(顛倒)는 주체가 삶의 태도로 정식화한 것이다. ‘절름발이’는 그런 삶의 태도를 육체적 불구의 형태로 외화한

10) 『이상문학전집2』(문학사상사, 1991) 앞으로 이상 소설의 인용은 이 책의 페이지를 따른다.

것이다. 주체는 또한 ‘슬픈 듯한 포우즈 취하기’, ‘죽을 것만 같이 중속을 속이기’로 자신을 위장한다. 이와 같은 ‘위장’은 나르시시즘적인 자아가 자기를 연기(演技)함으로써 정체 드러내기를 연기(延期)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기의 절정은 자신을 ‘형해’, 죽어버린 시체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죽은 책’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육(체)이 있어야 한다. 위 인용문만 놓고 보자면 살아있는 육이 없으므로 ‘죽은 책’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산 육(체)의 없음=형해는 죽음에 맞닥뜨린 실제 이상인가, 아니면 텍스트 층위의 서술주체인가. 살아 있는 이상이 텍스트 층위에서는 이미 죽어버린 이상을 상상한 듯한 위 예문은 주체의 불안한 내면을 드러낸다. 연기술로 위장해보지만 ‘피골이 상접’한 육체가 주는 생생한 공포를 가릴 수는 없다. 살아 있는 이상/죽은 이상, 실제 작가/서술자 간의 균열에서 빚어지는 복화술은 육체의 종말인 죽음에 직면한 주체의 위기를 텍스트화 한 것이다.

죽음을 연기하는 방식은 「종생기」에서 열세벌의 유서를 장만하는 것에서 절정에 이른다.

1) 나는 老來에 빈한한 식사를 한다. 십이시간 이내에 종생을 맞이하고 그리고 할 수 없이 이리 궁리 저리 궁리 유언다운 유언 어디 유실되어 있지 않나 하고 찾고, 찾아서는 그중 의젓스러운 놈으로 몇 추린다. (378-9면)

2) 묘비명이라. 일세의 귀재 이상은 그 통생의 대작 「종생기」일편을 남기고 서력기원후 일천구백삼십칠년 3월3일 未時 여기 白日아래서 그 波瀾萬丈(?)의 생애를 끝막고 문득 卒하다. 향년 만이십오세와 십일개월. 오호라. 삼심커다. 허탈이야 잔존하는 또하나의 이상 구천을 우리러 호곡하고 이 한산 일편석을 세우노라. 애인 정희는 그대의 歿後 수삼인의 秘妾된 바 있고 오히려 長壽하니 地下의 이상아 바라건댄 瞑目하라. (pp.384~5.)

살아있는 이상은 죽은 이상의 묘비명을 작성한다. 묘비명에 드리워진 엄숙함을 무화하기 위해 그것을 '통생의 대작'이라 조롱하는가 하면, 그가 죽은 후 '수삼인의 비첩'이 되어 장수하는 정희의 일생을 적어 놓는다. 글쓰기로 여인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종생을 유유히 즐기기로' 하고 자신의 육체를 스타일화하고,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은 죽음을 연기하는 또다른 방식이다. 머리를 다듬고 수염을 깎고 코털을 가다듬고, 모자에 단장을 낀 모던 보이(모던 보이)의 형상으로 변신술(翻身術)에 능한 여자 '정희'와 '속고 또 속고 또또 속는' 관계를 지속한다. 이상 소설에서 변신술에 능한, 남성과의 성적 계약(sexual contract) 관계를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여성이 자신의 성-육체를 스타일화 하는 것과 이 모던 보이의 스타일화는 기이한 짝패를 형성한다.

「날개」와 「지주회사」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듯이 거대한 여성/왜소한 남성이라는 이항대립항은 공적인 성별 정체성을 허문다. 이 왜소한 남성은 창녀인 아내에게 기생해 살아간다. 창녀-아내는 평균적이고 속물적인 근대의 부정성을 체현한 존재로서 주체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나르시시즘적 주체는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위장'의 방식을 택한다. 그것은 새디즘이나 매저키즘, 아내를 환유하는 물건에 대한 집착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날개」의 나는 아내가 외출한 뒤 아내의 옷이나 화장품 냄새를 맡으면서 시간을 보낸다. 아내의 화장품이 풍기는 '쎬슈알'한 향기를 통해 아내의 체취를 맡고, 아내의 옷을 통해 아내의 '동체'와 그 동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우즈를 연상한다는 것은 욕망의 대상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사물화되고 파편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욕망의 대상이 지닌 물건에 집착하는 패티씨즘적 면모를 띠는 것이다.

나는 자발적으로 아내에게 혼육당한다. 아내가 해주는 밥은 '닭이나 강아지처럼 말없이 주는 모이'로 환치되면서 내 몸은 말라 들어간다. "영양부족으로 하여 몸뚱이 곳곳이 뼈가 불쑥 불쑥 내어밀" 듯한 몸은 '형해'-시체에 가깝다. '왜소한 남성'으로 위장하기는 '쾌감이라는 것의 유무'를 시험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외출에서도 지속된다. “돈을 쓰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피곤에 지친 몸, 아내가 설정한 금기의 시간을 어김으로써 당하는 신체적 처벌, 아내의 방에서 자기 위해 그녀의 손에 돈을 쥐어줌으로써 내객되기를 자처하기 등은 아내와 나 사이의 관계를 한갓 성을 매개로 한 자본주의적 교환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조롱하려는 전략이다.

때문에 이 주체가 자신의 왜소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내로부터 벗어나 자기 몸의 원형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두 단계를 거친다.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지는” 듯한 환각을 통해 아내의 몸을 처벌한 연후에 자신의 몸은 이카로스의 날개처럼 ‘인공’의 날개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다. ‘인공성’이란 나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위장의 정점에 있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아내’로 대변되는 썬슈얼하고 쾌미를 자극하는 근대의 상품성, 속물성에 남성 주체가 몸으로 저항하는 방식이다. 방에 갇힌 몸과 비상하는 몸, 병약한 몸과 인공성의 몸은 그러므로 ‘진전한 몸’, ‘실재하는 몸’이라는 현실 원칙을 배반함으로써 자기 몸을 연기(演技)하는 주체의 보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주회사」의 나는 어떠한가.

나는 거미다. 연필처럼야위어가는것-피가지나가지않는혈관-생각하지않고도 없어지지않는머리-카막힌머리-코없는생각-거미거미속에서 만나오는것-내다 보지않는것-취하는것-정신없는것-방-버선처럼생긴방이었다. 아내였다. 거미라는땀이었다. (p.300.)

거미-분명히그자신이거미였다. 불뿌리처럼야외들어가는아내를빨아먹는거미가 너자신인 것을 깨달아라. 내가거미다. 비린내나는입이다. 아니 아내는그림에게서아무것도안빨아먹느냐. 보렴-이파랗게질린수염자국-헝한눈-늘씬하게만 연되나마나하는형영없는영양을-보아라. 아내가아내다. 아내아닐수있으랴. 거미와거미거미와거미나. 서로빨아먹느냐. 어디로가나. 마주아웨는끼닭은무엇인가. 그래도여전히그는 잔인하게아내를밧았다. (p.301.)

아내와 나는 서로를 빨아먹고 아위어가게 하는 ‘거미’로 환치된다. ‘아내에게 오쟁이진 남편’이라는 이상 소설의 공식에서 보자면 나는 아내의 또다른 환유물인 ‘버선처럼 생긴 방’에 갇힌 채 아위어 가는 존재일 테지만, 나 역시 ‘물뿌리처럼 야외 들어가는 아내’를 빨아먹고, 잔인하게 밟는 한갓 거미같은 기생적 존재이다.

하지만 방이라는 유폐된 공간을 벗어나면 이들은 자본주의라는 더 큰 거미줄에 매달린 가련한 존재이다. 양돼지 같은 R카페의 주인과 ‘옥수수 과자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마유미는 자본주의적 삶에 충실하다. 아내는 양돼지에게 얻어 맞는 ‘새양쥐’이며, 보상으로 주어진 돈 20원의 노예이다.

이 ‘돈-거미’의 지배 질서에 대응하는 방식은 매저키즘적이다. 나는 “아내야 또 한 번 전무귀에다 대이고 양돼지 그래라. 걸어차거든 두말 말고 층계에서 내리 굴러라”고 한다. 방밖의 세계에서 나-아내의 동질성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매저키즘적이고 가학적인 태도는 ‘위장’의 또다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역시 자신을 비하하고 처벌하는 매저키즘적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이상 소설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이상 소설이 지닌 자기 모멸적이고, 죽음조차도 유희화하는 글쓰기는 자기 목적화된 글쓰기를 통해 조형되는 미적 주체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이다.¹¹⁾ 그리고 그 글쓰기는 글 자체의 육체성을 지향한다.

4. 몸의 발견과 성찰적 주체, 유희림과 최명익

유희림의 「부호」는 불안한 시대 및 세대의 문제를 남녀간의 갈등과 겹쳐 전개하는 한편, 그것을 다시 소설 속 소설쓰기 행위와 남성의 몸에 대한 성찰과 겹쳐 전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1) 서영채,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서울대박사논문, 2002), pp.264~8참조.

문학동인인 동규와 혜은은 연인관계였다. 하지만 동규는 혜은이 갑자기 아마추어 운동선수였던 성호와 결혼을 한 데다 생각지도 않은 암에 걸려 생의 의욕을 상실한 상태다. 집필 중인 작품 「호노리아」는 우울증과 육체적 병을 함께 앓고 있는 그에게 유일하게 생을 지속해야 할 동기를 제공한다.

로마의 문화가 안으로 가톨릭 교리에 의한 자멸을 앞에 놓고 북방으로 몰려 들어오는 버버리즘에 위협을 받고 있던 무렵, 문화의 정수가 모이는 라벤나 궁전에 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후 운상의 옥좌에 앉아 오카스타스의 칭호로 불리지만 공허와 고독과 부위를 어쩔 수 없었던 정열의 처녀 호노리아¹²⁾

위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동규가 구상 중인 역사 속의 호노리아는 버버리즘의 시대에 좌표를 상실한 채 떠돌다 그 버버리즘에 귀의/포섭되고 마는 조선의 '인텔리겐차'와 그것의 표상인 혜은을 빗댄 것이다. “호노리아란 로마 역사에 던져진 혜은의 그림자”라거나 “버버리즘을 경멸하면서도 어처구니없이 그리로 끌려 들어가는 지식인의 그림자”라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 혜은과 조선의 지식인은 동규에 놓인다. 문명이나 이성과 같은 근대의 산물이 파국에 이른 시점에서 역사의 괴물로 솟아오른 파시즘은 물질이나 육체, 자연에 열광하고 이를 미학화한다. 특히 파시즘은 노골적인 반(反)지성주의를 바탕으로 의지에 대한 찬양, 신체의 힘에 대한 찬양을 결합시킨다. 육체의 물신화와 신체적 완벽성의 미학은 파시즘과 파시스트의 정치적 기획 속에 명확하게 나타난다.¹³⁾ 신체정치라는 개념에 기초해 인간과 사회적 신체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까닭이다. 작가는 “너무 이론정연한 이론에는 으스스하고 싸늘한 바람이 돈”다고 보고, 창백한 지성으로부터 건장한 육체로 자리 이동한 혜은을 통해 파시즘의 대두에 따른 불안과 경계를 우회적으로

12) 유항림, 「부호」, 『한국소설문학대계』24(동아출판사, 1995), p.209. 앞으로 「부호」의 인용은 이 책의 페이지를 따른다.

13) 마크 네오클레우스, 정준영 역, 『파시즘』(이후, 2002), pp.182~3.

보여주는 것이다.

성호-혜은-동규 이 남녀간의 삼각관계 구도와 실연으로 인한 상처라는 걸 이야기를 한 걸 벗기고 나면, 안에 있는 열정을 밖으로 풀어내지 못한 채 '공허, 무위, 고독'을 현실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방식으로 택한 채 살아가던 1930년대 후반 지식인 군상이 선연히 다가온다. 그 무리로부터 걸어나와 성호의 편에 선 혜은은 당시 상당수 지식인들이 전향이나 궤멸의 길을 걷게 된 경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열정을 투사할 대상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강한 것에 기대어 자기 정체성을 보존받고자 했던 것이다.

이 야만의 시대는 동규의 몸에 우울증과 위암이라는 흔적을 남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우울증은 외부세계와의 단절, 사랑의 능력 상실, 행동의 억제, 자기 비난과 자기 비하 등의 특징을 나타내는 병리적 반응으로서 자애심의 급격한 하락을 표상하는 퇴행적인 정신적 징후이다. 그렇다면 동규가 앓는 우울증은 위암이라는 육체적 질병으로 전이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

한편 비관이나 절망이니 하는 '지식에 그치는 주해' 달기란 관념적인 행위는 "주밀한 논리의 국조 속에서 돌아가는 치차에 편의상 붙여진 부호"에

14) 김한식은 최명익과 유항림의 소설에 드러난 질병의 상징성을 논하면서 '암'이 1930년대 후반 인텔리의 고민과 절망을 나타내는 특별한 이미지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이 점 본고의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는 결핵이 지성과 고독과 가난의 질병이라면, 암은 자본주의의 억압과 과로와 물질의 풍요가 낳은 질병이라며 이 둘을 구분한다. 그는 이상과 김유정 소설의 낭만적 충동이 결핵의 이미지와 관련있다면, 유항림의 「부호」에서 동규가 택하는 사실적, 현실적 태도는 암이라는 질병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와 같은 차이를 1930년대 전반과 후반의 시대적 상황 변화와 대응시킨다. 하지만 수잔 손탁과 김윤식의 견해에 기댄 그의 구분은 자의적이고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 특히 암은 자본주의적 삶 속에서 얻어지는 근대의 첨단 경험이라는 전제는 저개발 자본주의, 식민지 근대라는 당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보편화의 논리라 할 수 있다.

김한식, 「30년대 후반 소설에서 질병의 상징성 연구」, 『현대소설과 일상성』(월인, 2002), pp.243~9.

불과할 뿐이라는 반성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식인들의 이성지상주의를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리의 부호'와 정반대되는 지점에 '위암에 걸린 몸'이라는 자명한 현실이 자리한다.

여기 나라는 위암 환자가 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죽는다. 이런 객관적 사실 위에 주관의 절망이 무슨 필요인가. 싫든 좋든 위암에 걸린 위암 환자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위암 환자가 되어버린 이상 위암은 벌써 무서울 것도 없이 나 자신이다. 죽음의 시간으로 죽음의 날을 이을 생명의 꿈초. 아니다, 나는 시체가 아니다. 죽음은 위암이란 병마의 목적지고, 위암 환자인 나는 그것에 저항하여 생명을 연장하여야 하고 생명이 있는 나는 생활을 가져야 한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생활의 극한이 문제다. (『부호』, p.224.)

병에 걸린 몸에 대한 인식은 '죽음'이라는 눈 앞의 객관적 사실을 수리하고, 주관을 넘어서서 생활을 발견하려는 능동적 태도를 낳는다. 죽음을 관념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저항하여 생명을 열망하는 나의 태도는 관념뿐만 절망과 죽음을 앓는, 한갓 '부호' 놀음에 매달려 생을 당진하는 지식인들과는 대비된다. 이렇게 본다면 역설적으로 죽음에 근접한 몸은 관념, 혹은 지성을 가장한 채 야만의 시대에 동침한 당대 지식인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거점이 된다.

또한 그것은 주체의 글쓰기 욕망을 추동하는 직접적인 동인이 된다. 실연을 경험하고 병이 들어서야 비로소 주체는 문학에 대한 추상적인 동경과 욕망에서 벗어나 반성적인 성찰의 시선을 취한다. 「호노리아」 쓰기는 '생활을 가지는 방법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글쓰기 욕망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유일한 도구이다.

「부호」에서 이 죽음에 근접한 남성-지식인의 몸은 텍스트의 플롯짜기(plotting)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위궤양에서 위암으로의 전이, 환자가 정확한 병명을 알아가는 과정은 헤은의 변심에 내재한 진의를 알아가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시대와 자기에 대한 성찰 과정과 같이 한다. 이처럼 텍스트가 자기의 주제를 구현해 가는(embodiment) 과정, 구축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의 육체화'라 불러도 될 법하다. 한 병든 남성의 자기 성찰 과정이라는 뼈대에 연애가 파국에 이르게 되는 과정, 버버리즘의 시대에 동조하는 지식인 비판, 글쓰기의 실천적 의미 등과 같은 여러 겹의 살을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육체의 이야기화'란 측면에서 이 작품은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 포즈뿐인 니힐리즘의 세계에 침잠해 있던 초점화자 '동규'가 자기 몸으로 인식의 시선을 옮기면서 그 세계를 부정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전의 세계관이란 일개 '부호', 즉 구체적 형체를 상실한 기호로만 존재했던 데 반해, 지금 자기 몸에 발생한 **상황은** 자명한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세계관의 내밀한 비밀에 도달하기 위해 동규는 아픈 몸이라는 통로를 거치는 것이다.

「심문」에서 과거 열렬한 맑스주의자였다가 아편중독자로 전락한 현일, 「역설」에서 몸을 앞뒤로 흔들어대는 상동병자, 「무성격자」에서의 병든 아버지 등 뒤틀린 기형의 몸, 신체적, 정신적으로 병든 몸을 통해 당대를 우화적으로 직조해 냈던 작가 최명익. 그의 작품들에서 남성의 몸에 새겨진 기형과 질병의 흔적들은 대상¹⁵⁾에 대한 열망과 욕망 추구가 좌절된 주체의 위기를 드러내는 확실한 징표이다.

또한 대체로 이 남성들의 비정상적인 몸, 불안한 내면은 그 불안을 여성이나 동물에 투사함으로써 전경화된다. 「역설」에서 움츠린 채 뛰지 못하는 움두꺼비, 「무성격자」에서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문주, 「심문」에서 아편에 중독되어 죽는 여옥과 발톱이 길어 날지 못하는 **종달새** 등은 모두 남성 주체의 위기를 비취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다.

남성주체의 '병든 몸'이라는 주제는 최명익의 「폐어인」에서도 반복된다. 「폐어인」에서 서사의 맨 앞에 배치된 '쥐를 잡아먹고 죽은 고양이', 작품 마

15) 그 대상은 화폐, 맑스즘이라는 선명한 이념, 최명익 소설의 주 모티프로 등장하는 독서로 다양하게 변주된다.

지막의 '죽어가는 페어'는 바로 죽음 직전에 처한 남성의 몸을 우화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현일-도영-병수는 시대에 낙오한 지식인이다. M학교 교원이었던 현일과 도영은 고학으로 학교를 나와 교편을 잡다가 같은 병을 앓고 있다. 패기 만만하게 현실을 헤쳐나왔던 그들에게 실직과 병은 함께 왔다. 변화한 현실은 "사람은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전공하고 연구한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그냥 지켜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으로 만들었고, '시정인'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한다. 파시스트적인 속도로 주체를 위협하는 현실은 개인을 무장해제시킨다. 이런 현실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개인의 위기는 현일의 병든 몸으로 외화된다.

똑같이 폐결핵을 앓고 있는 도영은 현일과 사뭇 다르게 현실에 대응한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오직 살고 싶다는 한 가지의 욕망" 뿐이다. "살기만 한다는 단단일념으루 비판이니 염세니 하는 망상이나 결벽증을 버리고 뱀이건 지렁이건", 혹은 "쥐똥밥이건 팔밥이건" 가리지 않고 다 먹는 도영의 의지는 그 의지를 배반하는 양상한 몸으로 인해 더욱 그로테스크하게 비취진다. 내포 작가는 '살고 싶다는 욕망' 하나로 현실을 적극 수용하는 도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혹 이것은 1930년대 후반 이 땅의 지식인들이 걸었던 두 가지 길에 대한 (내포) 작가의 가치 판단이 개입된 것은 아닐까. 지식인에게 예리한 비판의 칼날을 거두도록 요구하는 현실 속에서 지식인들은 대체로 두 가지 길을 선택했다. 야만적인 현실에 대해 동조도 비판도 하지 않은 채 내면으로 침잠하는 길, 살아남기 위해 그 현실을 적극 수용하는 길이 그것이다. 후자에 해당하는 도영은 폐결핵이라는 육체적 질병 외에 신경쇠약증을 앓고 있다. 사회가 한바탕 분열증을 앓고 있는 듯한 마당에 개인의 영혼이 온전할 리 없다. 도영의 신경쇠약증은 분열증적인 사회에 자기를 방기한 채 몸을 내맡긴 당대 지식인들을 음각(陰刻)화 한 것이다.

이들과는 다른 제너레이션에 해당하는 병수 역시 육체적 질병은 없지만 현일의 각혈, 도영의 신경증에 공명하고 실생활에 나서길 두려워한다. 마찬

가지로 생의 의욕을 상실한 상태인 것이다. 병수에게까지 감염된 ‘불안이라는 유행병’은 “용기를 일으킬 만한 사상과 신념을 붙들지 못하였다”는 데서 비롯된다. 사상과 신념, 그것을 삶의 자리로 옮겨 가지고 와 실천하기. 근대 지식인들이 지고의 가치로 삼았던 이같은 좌표의 상실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의 근인(根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절망과 패기. 비관과 낙관. 그 두 가지 정반대의 생각을 번갈아가며 지금까지 살아왔거니.

절망과 비관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 뼈를 깎는 듯한 절망에 부닥치다 못하여 애써 빈약하지만 자기의 철학의 지식을 끄집어내어 구원한 인생의 발전을 명상해 볼 때에는 청신한 공기를 호흡한 듯이 상쾌함을 느끼는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자기도 한 짐을 맡았으면 하는 패기도 느껴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등지고 죽어가는 자신을 생각할 때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한 절망을 느낄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자기의 세계라면 참고 사는 때까지 살아 가리라 하였다. 그렇지만 또 견딜 수가 없었고 아직 남은 마음의 탄력으로 또 상쾌한 명상으로 떠올라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게는 무엇이 남았으랴. 절망인들 남았으랴. 죽어가는 폐어에게 물도 공기도 무슨 소용이랴.¹⁶⁾ (밑줄 필자 강조)

절망과 패기, 비관과 낙관이라는 이 아슬배반적인 정서는 어쩌면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보편적인 정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양자간의 길항관계, 긴장관계는 한 쪽이 소멸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각혈하는 몸, 신경증의 몸이라는 몸에 찍힌 낙인으로 인해 비관적 상황을 뚫고 나올 ‘상쾌한’ 낙관의 정서를 도무지 만들 수 없는 까닭이다. 각 문장마다 거듭서술된 ‘그러나’는 위기를 타개할 길을 찾지 못한 주체의 복잡한 내면을 효과적으

16) 최명익, 「폐어인」, 『한국해금문학전집』12(삼성출판사, 1988), pp.176~7.

로 드러내는 인술적 지표다. '인생을 등지고 죽어가는 자신'이라는 엄정한 현실과 살고자 하는 의지, 청신한 공기, 상쾌한 명상과 같은 의지의 세계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갈등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현실은 절망과 같은 관념의 유희가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맨 마지막 '그러나' 뒤에 오는 진술인 '죽어가는 폐어'는 바로 죽어가는 자신을 가리킨다.

근대 이성의 시작은 알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어쩌면 현일이나 도영의 지식인으로서의 여정은 바로 이 욕망의 변형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몸은 이성을 배반한다. '폐결핵'이라는 병명을 알지만 그것을 치유하지 못하는 상황. 그것은 근대 이성이 파국에 이르렀다는 상황 판단은 가능하지만 그 상황을 재편/개혁하지는 못하는 지식인의 막다른 길을 빚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도저한 열패감과 피로는 1930년대 후반 모더니즘 문학이 도달한 자리로서 남성 주체의 몸으로 재현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5. 맺는 말

본고는 1930년대 지배적인 몸 담론에 저항하는 모더니즘 문학의 몸 담론을 남성 육체가 재현되는 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1930년대 중반 이후 모더니즘 소설은 다양한 서사 전략을 통해 주체의 정체성 위기를 다룬다. 특히 남성의 몸을 병약한 몸, 신경증이나 우울증에 걸린 몸, 여성적인 것으로 기호화된 몸으로 재현하고, 주체가 그런 자신의 육체를 발견해 가고, 육체에 각인된 사회적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을 형상화한다. 근대(성)에 대한 일련의 반성적 성찰이라는 맥락에서 남성의 몸은 주체 위기를 되짚어보는 일차적 장소로, 병든 사회에 대한 기호로, 때로는 그 사회에 편입되지 않으려는 저항의 거점으로 기능한다.

그런데 이 남성의 몸은 여성의 몸을 유혹과 파괴의 자질을 지닌 것으로

타자화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몸을 자기회합으로써 구성된다. 이상 소설에 출현한 ‘여성화된 남성’은 모더니즘의 자기반영적 특질인 인공성의 단면이자 남성 주체가 자기 정체를 연기(演技/延期)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고안한 것이다. 더욱이 죽음에 처한 몸, 처벌받는 몸처럼 자기 파괴적인 몸은 한갓 유희의 대상이 된다. 작가는 자명한 현실, 자명한 몸에 대한 상식을 전복하고, 몸에 새겨진 의미를 극대화함으로써 그것을 글쓰기의 차원에서 체현(embody)하는 것이다.

한편 최명익과 유항림은 환멸뿐인 현실, 주관적인 절망에 빠진 지식인의 이성중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남성의 몸을 성찰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남성 주체는 암이나 각혈과 같이 몸에 벌어진 자명한 사실을 수용하면서 관념으로 주도되었던 이전의 세계를 부정하게 된다. 요컨대 몸의 발견과 야만의 시대에 대한 비판이 함께 함으로써 당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몸의 서사’라는 관점에서 모더니즘 소설을 새롭게 읽을 경우 그것이 당시의 지배적인 몸 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 재현된 남성의 몸은 근대적 삶에 포획되면서도 동시에 저항하는 주체의 불안한 내면을 기호화한다. 저항과 공모 사이에서 유동하는 남성의 몸은 당대 남성-지식인들의 향방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필자 : 한림대 강의 전담교수

Abstract

Modernism Novel in 1930' s and The Narrative of Body

Kim, Yang-sun

This thesis intends to look for the way of representation of male body in the modernism novel in 1930' s. Because the identity crisis of subject is somewhat related with the body. So this thesis will illuminate how the construction of subject is connected with the thematization of 'body', and the narrative plot and 'body' are co-related.

In the patriarchal society, the male body is considered as unproblematic, so it is excluded and concealed from the object of representation. Then modernism novel in the middle of 1930' s becomes to represent the male body as an ill, neurotic or melancholic body. Those are signified as the feminine. The modernism novel in this period finds that signified male body, and describes the subject who quests the social meaning carved at his body. In the context of reflection about modernity, the male body is functioned as the primary place for contemplating the subject's identity crisis, the sign of ill society, and the position for protesting toward that society.

The 'feminized male' in Lee Sang's novel is designed for the artificiality, the self-reflexivity of modernism. And it is designed for the strategy that the male subject acts/delays his identity. In addition to, the self-destructive body like dying body, punished body is not going beyond the object of a game. The writer upsets the idea of self-evident

reality and body, and embodies the meaning of body at the practice of writing.

Choi Meong Ik and Yu Hang Rim become to reflect the male body, because they intend to criticize the disillusioned reality, the intellectual's logocentrism. The male subject accept the self-evident reality of body like cancer or blood-spitting, and he denies the prior world which is formed by an ideology or subjective despair. That is, he can judge the contemporary savage reality objectively with the discovery of body.

If we read the modernism novel in the standpoint of 'the narrative of body', we can know that novel has the characteristic of counter-narrative about the prime narrative of body in 1930's. The male body which is represented in modernism novel signifies the disturbing inner mind of subject who is grasped but protest on modern life. So we can see the male-intellectual's path through that narrative of male body.